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07, Vol. 13, No. 4, 1~27.

한국형 결혼관 척도 개발 연구*

남 순 현†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결혼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그 당시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알아보기 위한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특히, 젊은이들의 결혼관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최근 서구의 결혼관이 많이 유입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그 이면에는 과거 전통적인 제도적 결혼관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관을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형 결혼관 척도를 통하여,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가치관 혼재에 따른 갈등을 예측해보고, 기혼부부의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정형성을 위하여 성공적인 결혼과 결혼 전·후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보고자 한다. 27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항선정 예비연구와 1,283명의 기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결혼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한국형 결혼관 척도에서는 '전통적인 결혼', '성공적인 결혼', '결혼의 불합리성', '결혼의 필요성', '동거', '이혼 및 재혼'의 6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기존의 척도와도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각 하위척도들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63 에서 .88로 비교적 신뢰롭게 나타났다.

주요어 : 결혼관, 한국형 결혼관 척도, 성공적인 결혼, 전통적인 결혼, 결혼관 변화, 동거, 이혼 및 재혼

---

* 본 연구는 2006년도 호남대학교 교내공모 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 교신저자 : 남순현,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광주시 광산구 어등로 330
Tel : 062) 940-5419, E-mail : shnam@honam.ac.kr

www.kci.go.kr

최근 서울시 한 보도에 따르면, 미혼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5. 11. 8). 이와 같은 결과는 보건복지부의 2005년도 전국 결혼, 출산 동향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35세 이상 미혼 여성의 50%만이 결혼을 희망했다. 미혼남성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주택, 혼수 등 결혼비용 부담(21.3%), 소득부족(19.2%), 직업불안정(17.3%) 등이었으나, 미혼여성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17.8%), 결혼비용 부담(13.2%) 등을 꼽았다(통계청, 2006). 따라서 '알파걸'이라는 신조어가 대두될 정도로 최근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육수준의 상승은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결혼관의 변화를 낳고 있다. 아울러 젊은 성인남녀 모두 경제적 자립과 일에 대한 성취욕구가 강해지면서 만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서구의 개인주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교육제도, 생활양식, 정치체계 속에서 성장한 오늘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뿌리깊이 내려온 유교적 전통과 집단주의적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점차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성향은 사회구조의 과도기적 변화를 초래하며, 더 나아가 가족구조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자아정체성의 핵심이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생계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가족에 있고, 여성과 남성은 가족 속에서 돌봄과 생계부양이라는 분리된 성역할을 가진다고 보는 전통적 가족개념이 개인주의적 가족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남순현, 2004; Drew, 1998). 이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념, 결혼의 동기와 필요성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졌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가족집단의 단결과 영속화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가족구성원의 꾸준한 집단적 노력이라고 정의되지만(옥선화, 1989), 기존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고 가족중심적 집합주의 가치성향을 지양하며 대안적 가족구조(예, 동거, 독신, 이혼 및 재혼 등)를 더 많이 선호한다. 이는 과거 기성세대가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결혼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온 반면, 젊은 세대에게는 각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정신은 모든 사람들의 공유된 목표라고 할 수 있으나,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박영신, 김의철, 2006), 결혼안정성을 결혼유지라고 한다면(Larson & Holman, 1994), 젊은 세대는 결혼안정성보다 결혼행복성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변화하고 있는 젊은 성인남녀의 결혼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결혼에 대한 개념 변화이다. 과거, 결혼은 전 생애에 한번 있는 일륜지대사였기에 결혼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나,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변화이다. 즉, 결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발달과업이 아닌 달성해야 할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 과거와 달리, 젊은 성인남녀는 더 이상 결혼을 통해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결혼연령과 유형의 다양화 및 확대이다. 젊은 세대에게 결혼적령기의 개념은 희박해진 지 오래이고, 만혼, 나이차 많은 결혼, 연상연하 커플, 동거나 이혼·재혼 등 과거에 비정

www.kci.go.kr

상적으로 여겨졌던 결혼이 보다 더 수용되고 있다.

과거 우리사회의 집단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가치관은 개인이 가족체계의 구성원일 때보다 사회집단의 일원일 때 강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점차 우리사회는 집단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이고 가족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변모되었다. 다시 말해, 젊은 세대일수록 직장보다는 가족을, 일보다는 건강과 여가를 먼저 우선시한다. 이는 개인에게서 공적인 생활보다는 사적인 생활, 즉 가족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남순현, 한성열, 2002). 하지만 관계적 기능을 제외한 가족의 모든 기능들이 점차 사회로 환원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젊은 성인남녀의 의식변화는 결혼관의 변화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혼관은 결혼 및 결혼과정에서의 배우자 선택, 나아가 결혼 후의 가정설계 등에 관련된 가치관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와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결혼과 관련된 행동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미래의 결혼 및 가족양상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그리고 올바른 결혼관 확립은 젊은 세대에게 결혼의 안정성 기반위에서 결혼의 행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핵심과제이며, 성공적인 결혼준비와 결혼생활의 적응을 돕는 일이다.

하지만 결혼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절감하고 있으나, 결혼에 관한 연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지극히 미약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결혼에 관한 연구는 좁은 범위에서 많은 우연의 요소 중 극히 협소한 상식과 관습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상된 가정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결혼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다루어져서, 성공적인 결혼과 결혼 전·후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개념으로서 결혼관 척도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결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그 당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무엇이고 그것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나 결혼 후 기혼부부의 심리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는 전무하다. 즉, 결혼관 척도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없이 결혼관이란 그저 그 당시 시대를 반영하는 것으로만 치부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결혼에 대한 태도를 척도화하려는 국내의 유일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는 이해춘(1987)의 연구 역시, Q-Sort라는 방법론만을 강조할 뿐 문항자체도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혼관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혼의 예비부부나 기혼부부의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결혼관 척도의 개발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결혼관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국내외 연구동향

국내에서 결혼에 관한 연구는 1960년의 이효재 연구를 효시로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결혼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적 입장에서

www.kci.go.kr

가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정학과 사회학에서 그 주류를 이루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결혼에 관한 연구는 1970년 이후 새로운 연구대상으로 부각되면서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양적 팽창을 하였다. 국내에서 결혼관 연구는 연도별로 1960년대 9편, 1970년대 14편, 1980년대 66편, 1990년대 77편에 이른다.

국내초기 결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신혜성, 1987, 이온죽, 1982, 한남제, 1984, 홍승직, 1981)은 문헌고찰에 기초하고 있고, 사회학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결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결혼에서 파생되는 심리적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즉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결혼관 연구는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 결혼관계의 질, 결혼적응 등을 파악하는 연구로 변모했다. 김영옥(1999)의 우리나라 여대생을 대상으로 배우자 선택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 이후 결혼관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 연구도 정작 결혼과 관련된 문항을 통해 여대생이 지니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실태조사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속되어왔던 국내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김명자, 1992; 김봉소, 1969; 김영옥, 1999; 김철자, 1977; 김혜선, 김영희, 1983; 김혜향, 1969; 박경숙, 1993; 박인덕, 1973; 백남희, 1986; 송대현, 1969; 안해옥, 1987; 양명숙, 1996; 옥양련, 1977; 유영주, 1976; 이경숙, 1980; 이성해, 1979; 이정임, 1978; 정윤경, 1997; 조영숙, 1980; 최재석, 1979; 최호원, 1983; 한남제, 1974; 홍준숙, 1987)는 그 수가 부지기수일지라도 대부분이 결혼에 관한 의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한국인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시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대부분 인구통계적 변인만을 다루고 있을 뿐 사회변동에 따른 심리적 변화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외에서 실시된 결혼에 관한 연구는 Terman(1938)의 결혼생활 행복감(Marital Happiness Index) 측정을 시작으로 결혼의 구성개념, 즉 결혼생활 적응도(Locke, 1951; Spanier, 1976), 결혼생활 만족도 혹은 결혼생활 행복감(Lee, 1977; Marini, 1976; Roach, Frazier, & Bowden, 1981; Schumm, Jurich, & Bollman, 1986; Terman, 1938), 결혼관계의 질(Powers & Hutchinson, 1979; Sabatelli, 1984) 등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였다. 하지만 Lewis와 Spanier(1979)가 결혼생활의 질과 결혼생활의 적응, 만족, 안정성과 행복감 등의 관련된 개념을 결혼만족도라고 정의한 것처럼, 이러한 시도들은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작업일 뿐 결혼이라는 고유의 독특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즉, 이러한 시도는 부부관계의 호의성에 관한 태도 연구(Roach, Frazier, & Bowden, 1981)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도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결혼생활 적응이나 만족을 측정하고자 하는 작업(권정혜, 채규만, 1999; 정현숙, 2001; 한덕웅, 2003)이 결혼관을 결혼만족도로 대치시키는 경향을 낳았다. 그러나 결혼관과 결혼생활 만족도는 엄밀히 별개의 구성개념이고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형 결혼관 척도의 필요성

가족은 가족원의 개인적 발달과 끊임없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다른 가족원과의 관계

www.kci.go.kr

를 통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가족연구에서 다루는 다양한 변인들을 정확히 기술하고 평가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결혼은 가족형성의 시발점인 동시에 가족생애주기의 중요한 발달 전환 과제이기 때문에, 핵심주제로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중요한 결정사항으로서 가문이나 족보가 앞섰고 더욱이 여성 당사자의 의사는 거의 배제되었으며 새로운 가정을 꾸민다고 해도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다(최재석, 1979). 이를 Westermarck (1981)는 특히, 유교적 의식구조가 강하게 사회 전체를 지배했던 과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라고 하였다. 즉, 부녀자의 사회적 지위가 무시되고 가부장의 예속으로 시가에 충복하고 절개를 지키는 것을 미덕화하여 여성은 어려서부터 이러한 능력이 형성되도록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효의 기본 윤리에서 연유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도 시대를 반영하는 결혼관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국문화의 독특한 특성으로서 존재하는 결혼관, 예컨대 효에 바탕을 둔 궁합이나 남아선호사상이 뿌리박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젊은 세대는 이성교제와 결혼을 연속선상에서 고려하기 보다는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보려는 경향이 팽배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동거, 독신, 이혼 및 재혼가족을 결혼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보려는 경향이 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측면에서 서구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실상은 서구의 우애적인 결혼관과 우리나라의 과거 전통적인 결혼관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결혼에 대한 가치관 혼란은 기형적인 결혼문화를 창출하고 있고,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알리는 결혼의 미래는 그 앞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Larson과 Holman(1994)은 결혼안정성을 결혼유지 혹은 이혼의 상태로 정의하면서 결혼 전의 요인이 결혼안정성의 중요한 예견요인임을 강조하였다.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전의 요인에는 많은 변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성숙도일 것이다. 즉, 개인의 올바른 결혼관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이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올바른 결혼관과 가치관 정립은 건전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바탕이 된다. 김혜선과 신수아(2002)는 결혼안정성을 예견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써 첫째, 예비부부의 개인적 특성, 둘째, 예비부부간 유사성 및 상호작용, 셋째, 예비부부를 둘러싼 가족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하였다. Klein(2000)은 결혼 전의 준비가 결혼의 성공이나 실패를 완전히 예견할 수는 없지만, 결혼 전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등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안정된 결혼생활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하였다. 따라서 결혼 전 결혼에 대한 충분한 심리적 준비는 결혼 후 부부관계의 적응과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결혼관 척도 개발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의식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뿌리 깊게 내려온 고유한 전통적 결혼관과 서구문화의 유입과 급속한 산업화로 변모한 현대사회의 결혼관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결혼관 척도를 통하여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성인 남녀의 가치관의 혼재에 의한 갈등을 예측해보

www.kci.go.kr

고, 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적 자료를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미래 가정형성에 기여하는데 있다.

예비 연구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절차

결혼관 척도의 문항선정을 위하여 연구자가 교양강좌 수업시간이나 개별적으로 유목적적 편의표집에 의해 설문에 응한 300명의 대학생에게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25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대학생 275명(남자 129명, 여자146명)의 자료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5월 16일부터 2006년 5월 19일까지였다.

연구방법

예비연구는 문헌고찰, 설문조사, 질적 자료 분석 및 문항추출의 4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단계 문헌고찰에서는 기존의 문헌들의 검증과 고찰을 통하여 결혼관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을 유목화하였다. 특히, 유목화한 결혼관 척도 문항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현대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적인 특징(예, 남아선호, 궁합, 결혼 후 여성의 호적이적)과 최근 변화하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예, 동거)을 적절히 반영하는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2단계 설문조사에서는 1단계에서 유목화한 결혼관의 각 하위개념들을 반구조화된 문항들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대학생들에게 응답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응답자들은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_____ _____ .”이란 질문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야만 한다. 3단계 질적 자료분석에서는 대학생들이 응답한 내용들을 연구자외 2인이 질적 분석을 하였다. 연구자간 일치도((연구자간 일치 항목 수/전체 범주 항목 수)X100)는 .94에서 .97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4단계 문항추출에서는 범주화된 응답내용들을 토대로 결혼관 척도 121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예비연구에서 범주화된 각 항목의 질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 이미지

“결혼이란 _____이다.”에 대해 대학생은 표 1과 같이 파트너쉽, 가족공동체 형성, 사랑의 결정체, 자기완성, 종족번식, 부모로부터의 독립으로 크게 6가지 결혼이미지를 답했다.

표 1. 결혼 이미지

결혼 이미지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파트너쉽	53명	61명
2. 가족공동체 형성	40명	40명
3. 사랑의 결정체	8명	6명
4. 자기완성	5명	0명
5. 종족번식	4명	3명
6. 부모로부터의 독립	1명	1명
7. 기타	10명	10명

www.kci.go.kr

결혼에 대한 기대

"결혼생활에서 기대하는 것은 _____이다."에 대해 대학생은 표 2와 같이 행복추구, 심리적 안녕감,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 가족구성원의 자기실현, 성적만족, 삶의 변화, 상호의존 및 별 기대가 없다라고 답했다.

표 2. 결혼에 대한 기대

결혼 기대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행복추구	51명	38명
2. 심리적 안녕감	18명	14명
3.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	15명	22명
4. 가족구성원의 자기실현	5명	5명
5. 성적만족	3명	0명
6. 삶의 변화	3명	3명
7. 상호의존(든든한 내편)	0명	11명
8. 별 기대 없음	12명	14명
9. 기타	13명	13명

배우자 선택

"결혼한다면, 내 파트너는 _____인 사람이길 바란다." 라는 질문에 대학생은 표 3과 같이 성격, 능력, 생활습관(life style), 외모, 종교나 가치관 등의 순으로 배우자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결혼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_____이다." 라는 질문에 대학생은 표 4와 같이 신뢰, 사랑(배려, 이해), 의사소통, 경제력, 성격의 일치정도 및 장래성이라고 답했다.

표 3. 배우자 선택

배우자 선택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성격	76명	98명
2. 능력	19명	12명
3. 생활습관(life style)	6명	4명
4. 외모	5명	0명
5. 종교, 가치관	3명	3명
6. 기타	12명	3명

표 4.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신뢰	51명	64명
2. 사랑, 배려, 이해	49명	39명
3. 원활한 의사소통	6명	4명
4. 경제력	4명	6명
5. 성격의 일치정도	2명	0명
6. 장래성	1명	0명
7. 기타	8명	7명

결혼 동기

"결혼하고자 하는 이유는 _____이다."에 대해 대학생은 표 5와 같이 애정욕구, 안정 및 소속의 욕구, 이상추구,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및 사회적 요구 등이라고 응답했다.

www.kci.go.kr

표 5. 결혼 동기

결혼 동기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애정욕구	48명	62명
2. 안정 및 소속 욕구	39명	38명
3. 이상 추구	13명	4명
4. 생리적 욕구	4명	0명
5. 사회적 요구	0명	1명
6. 기타	17명	15명

행복한 결혼

"행복한 결혼이란 _____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대학생은 표 6과 같이 상호이해와 존중, 만족감, 가족 내·외적으로 갈등이 없는 생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 영원한 사랑, 자기실현, 일치감, 및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결혼이라고 답했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준비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준비는 _____이다."에 대해 대학생은 표 7과 같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 경제력, 자기성장, 및 성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결혼생활의 모델

"나의 결혼생활의 모델은 _____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대학생은 표 8과 같이 각자 자신의 개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부모, 주위인물 등을 모델로 삼고 있었다.

표 6. 행복한 결혼

결혼 동기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상호이해와 존중	46명	55명
2. 만족감	24명	12명
3. 가족 내·외적으로 갈등이 없는 생활	15명	12명
4.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	13명	5명
5. 영원한 사랑	6명	5명
6. 자기실현	4명	1명
7. 일치감	3명	0명
8. 친구 및 확대가족들로부터 인정받는 결혼	1명	2명
9. 경제력(풍요)	0명	5명
10. 기타	19명	23명

표 7.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준비

결혼 동기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배려, 이해, 신뢰	67명	72명
2. 경제력	17명	4명
3. 자기성장	11명	5명
4. 성적 준비	4명	2명
5. 생활습관(life style)	0명	4명
6. 역할 습득(요리 등)	0명	2명
7.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	0명	1명
8. 건강	0명	1명
9. 잘모르겠다	3명	3명
10. 기타	19명	26명

www.kci.go.kr

표 8. 결혼생활의 모델에 대한 성차

결혼생활의 모델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개인 이미지	76명	77명
2. 부모	11명	13명
3. 주위의 유명인물	6명	12명
4. 없다	15명	7명
5. 기타	13명	11명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는 _____."라는 질문에 대해 대학생은 표 9와 같이 가까울수록 좋고, 상관없다, 적당해야 한다, 멀수록 좋다 순으로 응답했다.

표 9.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가까울수록 좋다	44명	44명
2. 상관없다	43명	33명
3. 적당해야 한다(1시간 정도)	25명	36명
4. 멀수록 좋다	8명	3명
5. 기타	2명	4명

잘못된 결혼

"잘못된 결혼이란 _____이다."에 대해 대학생들은 표 10과 같이 믿음이 없는 결혼, 성격차이가 심한 결혼, 사랑이 없는 결혼, 조건만을 중시한 결혼, 성급한 결혼, 이혼 및 배우자의 외도라고 응답했다.

표 10. 잘못된 결혼에 대한 성차

잘못된 결혼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믿음이 없는 결혼	23명	36명
2. 성격차이가 심한 결혼	23명	13명
3. 사랑없는 결혼	18명	22명
4. 조건만 중시한 결혼 (배우자 배경을 우선시)	15명	12명
5. 성급한 결혼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한)	14명	10명
6. 이혼	4명	1명
7. 배우자의 외도	1명	0명
8. 동등하지 못한 부부관계	0명	4명
9. 주위에서 반대하는 결혼	0명	3명
10. 남자의 무능력	0명	1명
11. 기타	23명	18명

결혼생활의 방해요소

"결혼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은 _____이다." 에 대해 대학생은 표 11과 같이 경제적 곤란, 불신, 성격차이, 의사소통의 단절, 애정없음, 확대가족(시댁, 처가)과의 갈등, 외도 등이라고 응답했다.

배우자의 부정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을 때, 나는 _____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대학생은 표 12와 같이 이혼한다, 잠시 상황을 보류하고 대화를 나눈다, 용서한다, 폭력을 가한다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한다고 답했다. 또한 극소수의 남학생은 폭력을 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www.kci.go.kr

표 11. 결혼생활의 방해요소

결혼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경제적 곤란	31명	14명
2. 불신	29명	16명
3. 성격차이	26명	20명
4. 의사소통 단절	15명	3명
5. 애정없음	5명	3명
6. 확대가족(시댁, 처가)과의 갈등	4명	5명
7. 외도	3명	2명
8. 기타	8명	10명

표 12. 배우자의 부정

배우자의 부정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이혼한다	47명	62명
2. 잠시 보류하고 대화를 나눈다	20명	29명
3.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	18명	9명
4. 용서한다	17명	17명
5. 폭력을 가한다	4명	0명
6. 기타	15명	3명

배우자의 약물 및 알코올 중독

"결혼 후 배우자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증상을 보인다면, 나는 _____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대학생은 표 13과 같이 치료한다, 이혼한다, 종교에 몰두한다 등의 응답을 했다.

배우자의 폭력

"결혼 후 배우자가 폭력을 가한다면, ___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대학생은 표 14와 같이 대화나 힘을 제지하는 등 스스로 해결한다, 이혼한다, 외부의 도움을 청한다 및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다 등의 응답을 했다.

표 13. 배우자의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배우자의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치료한다	113명	99명
2. 이혼한다	5명	16명
3. 종교에 몰두한다	2명	0명
4. 기타	1명	5명

표 14. 배우자 폭력

배우자의 폭력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스스로 해결한다	61명	31명
2. 이혼한다	22명	73명
3. 외부의 도움을 청한다	7명	7명
4.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다	4명	3명
5. 기타	27명	6명

원만하지 않은 결혼생활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

"결혼 후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다면, 나는 _____."라는 질문에 대해 대학생은 표 15와 같이 별거 혹은 이혼, 생활의 변화, 부부간의 대화증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가족상담을 받아본다, 종교를 갖는다 및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대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표 15. 원만하지 않은 결혼생활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

원만하지 않은 결혼생활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별거 혹은 이혼	45명	40명
2. 생활의 변화	22명	12명
3. 부부간의 대화증진	22명	30명
4. 전문기관에 의뢰(가족상담)	11명	15명
5. 종교에 몰두(종교에 귀의)	1명	1명
6. 친구(주위사람)	0명	3명
7. 기타	0명	18명

결혼 후 부모의 간섭

"결혼 후 부모(시가, 처가)의 간섭에 대해, 나는 _____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대학생은 표 16과 같이 부모를 설득한다, 간섭을 거부한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무시한다라고 응답했다.

표 16. 결혼 후 부모의 간섭

부모의 간섭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부모를 설득한다	41명	38명
2. 간섭을 거부한다	33명	47명
3. 그대로 받아들인다	20명	22명
4. 무시한다	13명	4명
7. 기타	14명	9명

가족 중 간섭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결혼 후 간섭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은 _____이다."에 대해 대학생은 표 17과 같이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장모), 형제자매, 시아버지(장인) 순으로 답했다.

표 17. 가족 중 간섭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간섭이 가장 심할 사람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어머니	66명	26명
2. 없다	24명	11명
3. 아버지	11명	9명
4. 시어머니(혹은 장모)	5명	55명
5. 형제・자매	4명	1명
6. 시아버지(혹은 장인)	9명	6명
7. 시누이	0명	4명
8. 기타	26명	8명

결혼문제의 도움을 청할 대상

대학생은 "결혼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_____이다."에 대해 표 18과 같이 친구나 동료들, 부모나 가족들, 전문기관, 배우자, 종교 및 스스로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응답

표 18. 결혼문제의 도움을 청할 대상

결혼문제 도움을 청할 사람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친구, 동료들	47명	42명
2. 부모, 가족들	37명	53명
3. 전문기관 의뢰	13명	11명
4. 배우자	8명	7명
5. 종교	5명	4명
6. 스스로 해결한다	4명	2명
7. 기타	7명	1명

www.kci.go.kr

했다.

결혼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대학생은 "결혼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_____."에 대해 표 19와 같이 상담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남학생이 105명, 여학생이 115명 응답했다.

표 19. 결혼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결혼문제 해결에 대한 상담받을 의사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있다	105명	115명
2. 없다	12명	3명
3. 기타	4명	2명

별거 혹은 이혼 고려

대학생은 "결혼생활이 불행하다면, 나는 _____."에 대해 표 20과 같이 남녀 대학생 모두 별거나 이혼을 고려한다가 안한다보다 높았다.

표 20. 결혼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별거 혹은 이혼 고려

결혼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별거 혹은 이혼 고려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별거나 이혼을 한다	85명	107명
2. 별거나 이혼을 안한다	29명	12명
3. 기타	7명	1명

사별이나 이혼 후 재혼 고려

"배우자와의 이혼(사별) 후, 나는 _____." 에 대해 남녀 대학생 모두 표 21과 같이 재혼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사별이나 이혼 후 재혼 고려

사별이나 이혼 후 재혼 고려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재혼할 것이다	67명	71명
2. 재혼은 안할 것이다	26명	20명
3. 기타	28명	29명

재혼의 장점

"재혼은 _____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라는 재혼의 장점에 대해 대학생은 표 22와 같이 전 결혼의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여생이 외롭지 않다, 정신적 외상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표 22. 재혼의 장점

재혼의 장점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또 다른 실패의 방지	40명	52명
2. 새로운 삶의 시작	22명	16명
3. 외롭지 않은 여생	10명	19명
4. 정신적 외상의 치유	10명	7명
5. 기타	39명	26명

재혼의 단점

"재혼은 _____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에 대해 대학생은 표 23과 같이 자녀문제, 사회적 편견, 두려움 혹은 위축감, 또 다른 실패가능성에 대한 위험 등의 단점이 있다고 보고했다.

www.kci.go.kr

표 23. 재혼의 단점

재혼의 단점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자녀문제	29명	36명
2. 사회적 편견	23명	14명
3. 초혼이 아닌 것에 대한 두려움, 위축감	21명	27명
4. 또 다른 실패가능성에 대한 위험부담	11명	12명
5. 생활패턴의 많은 변화	0명	3명
6. 재혼 전 가족관계	0명	6명
7. 기타	37명	22명

성공적인 재혼준비

"성공적인 재혼을 위해서, 나는 _____."라는 질문에 대해 대학생은 표 24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수집, 이혼의 원인분석, 자기성찰(반성), 가족(자녀 포함) 이해, 계부모-계자녀간의 친밀감, 심리적 외상 치유, 전 결혼에 대한 신변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24. 성공적인 재혼준비

성공적인 재혼 준비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수집	34명	34명
2. 이혼의 원인분석	15명	22명
3. 자기성찰	12명	11명
4. 가족 이해	6명	7명
5. 계부모-계자녀간의 친밀감 형성	0명	7명
6. 심리적 외상 치유	0명	2명
7. 전 결혼에 대한 신변정리	0명	2명
8. 기타	54명	35명

결혼 후 아들 출산

대학생은 "결혼 후에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은 _____."에 대해 표 25와 같이 남학생 81명이 꼭 낳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의 95명이 꼭 낳아야 한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오히려 여학생이 더 심한 결혼이데올로기를 보였다.

표 25. 결혼 후 대를 이을 아들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낳아야 한다	31명	95명
2. 낳지 않아도 된다	81명	22명
3. 모르겠다. 상관없다(기타)	9명	3명

자녀양육

대학생은 "자녀양육은 _____가 주도하여야 한다."에 대해 표 26과 같이 부부 모두, 남편, 아내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표 26. 자녀양육

자녀양육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부부 모두	77명	100명
2. 남편	2명	1명
3. 아내	35명	18명
4. 기타	7명	1명

www.kci.go.kr

가족경제

"가족경제는 _____의 책임이다." 에 대해 대학생은 표 27과 같이 부부 모두, 남편, 아내 순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표 27. 가족경제

가족 경제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부부 모두	46명	92명
2. 남편	56명	17명
3. 아내	9명	5명
4. 기타	10명	6명

주부의 직업

"결혼 후 주부가 직업을 갖는다면, _____." 에 대해 남녀 대학생 모두 표 28과 같이 대부분 찬성하는 편이었고, 그 외에 반대, 선택사항이라는 응답을 했다.

표 28. 주부의 직업

주부의 직업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직업을 가져야 한다	112명	108명
2. 직업을 갖지 않아야 한다	8명	3명
3. 선택사항이다	0명	6명
4. 기타	1명	3명

가정의 의사결정

"결혼 후 가족문제를 상의할 때, _____."에 대해 대학생은 표 29와 같이, 부부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그 외, 가족원 모두, 남편, 아내 순으로 응답했다.

표 29. 가정의 의사결정

의사결정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부부	67명	77명
2. 가족원 모두	31명	27명
3. 남편	16명	5명
4. 아내	3명	5명
5. 기타	4명	6명

배우자와의 궁합

"결혼할 때 배우자와 궁합이 맞지 않다면, 나는 _____."에 대해 대학생은 표 30과 같이, 과반수이상이 무시하고 결혼한다라고 응답했다.

표 30. 배우자와의 궁합

배우자와의 궁합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무시하고 결혼한다	102명	87명
2. 결혼하지 않는다	9명	16명
3. 결혼을 고려해본다	5명	14명
4. 기타	5명	3명

결혼 후 여성의 호적이적

"결혼 후 여성이 남편의 호적으로 이적하는 것은 _____."라는 질문에 대해 표 31과 같이 남학생 53명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 73명은 부당한 일이다라고 응답했다.

www.kci.go.kr

표 31. 결혼 후 여성의 호적이적

여성의 호적이적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당연한 일이다	53명	34명
2. 부당한 일이다	38명	73명
3. 고려해 보아야 한다	6명	0명
4. 기타	24명	13명

혼전순결

"결혼 전 혼전순결은 _____." 에 대해 표 32와 같이 남학생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54명, 지켜야 한다가 51명이었으나, 여학생은 지켜야 한다가 56명,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33명이었다.

표 32. 혼전순결에 대한 성차

혼전순결	남자 (121명)	여자 (120명)
1. 지키지 않아도 된다	54명	33명
2. 지켜야 한다	51명	56명
3. 상황에 따라 다르다	3명	6명
4. 기타	13명	25명

그 외 동거(혹은 독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하는 대학생 34명이 동거(혹은 독신)를 선택한 이유와 동거(혹은 독신)의 장·단점에 관해 응답한 내용을 유목화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질적 분석단계를 거쳐 범주화된 각 항목을 문장화하여 121개 질문이 도출되었고, 개별문항과 척도총점간의 상관관계, χ^2검증 및 Cramer's V계수를 사용한 문항양호도 검증을 통하여 최종 48개 문항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절차

연구대상자는 연구자의 유목적적 편의표집에 의해 설문에 응한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기혼부부 1,283명이다. 예비조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출된 한국형 결혼관 척도 48문항이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부부에게 얼마나 타당한지 그리고 기혼부부의 결혼관이 결혼적응과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목적을 충분히 숙지한 광주·전남지역의 30여개 중·고등학교 담임교사들을 통해 2006년 9월 25일에 중·고등학생의 부모 14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2주후에 회수할 예정이었으나, 회수율이 떨어져 2006년 10월 20일까지 회수한 결과 최종 1,295부가 회수되었다. 하지만 무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부를 제외한 1,283부(남자 629명, 여자 654명)만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기혼남자의 평균 출생년도는 1952.97년(SD=154.74)이고, 기혼여자의 평균 출생년도는 1949.72년(SD=171.37)이었다. 자녀수는 2명이 767명(59.8%)으로 가장 많았고, 과반수이상이 연애결혼(688명, 53.6%)이었으며, 대부분이 초혼(1241명. 96.7%)이었다. 가족형태는 1,162명(90.6%)이 핵가족이었다. 기혼남자(335명, 53.3%)와 기혼여자(294명, 45.0%) 모두 교육수준은 대졸이 가장 많았다. 한편 기혼남자의 직업은 전문직(288명, 45.8%), 사무직(145명, 23.1%), 자영업(124명, 19.7%)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혼여

www.kci.go.kr

자의 경우 전문직(250명, 38.2%)과 가정주부(239명, 36.5%)가 가장 많았다. 월소득은 기혼 남녀 모두 350만원이상(500명, 39.0%)이 가장 많았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징들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평균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상관관계를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치도 검증을 하였다.

연구결과

타당도 분석

한국형 결혼관척도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

한국형 결혼관척도의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 및 문항의 중요도는 연구자 외 4명의 전문가(심리학전공 박사 1명과 석사 1명, 사회학전공 박사 1명, 사회복지학전공 박사 1명)가 문항을 검토한 후, 기혼부부 30쌍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연구자 외 4명의 전문가가 기혼부부 30쌍이 반응한 문항의 적절성과 문항에 대한 이해도 등을 검토하여 문항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구인타당도

본 연구에서 한국형 결혼관 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요인추출모델은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 방법 중 하나인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고, 회전방법은 사각회전방법(Orthogonal) 중 Oblimin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 고유가(Eigen value)가 1.0 이상인 요인이 6개의 공통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우리나라 고유의 유교적 사상을 나타내는 궁합이나 남아선호와 관련된 12개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전체변량의 86.5%를 설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을 관리하기 위한 1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전체변량의 71.1%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54.6%를 설명하였는데, 결혼제도의 모순과 불합리성에 관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요인은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된 1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전체변량의 44.5%를 설명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은 최근 결혼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인 동거와 관련된 2개 문항이었고, 전체변량의 32.1%를 설명하였다. 마지막 요인은 전체변량의 31.9%를 설명하였는데, 최근의 가족구조를 반영하는 이혼과 재혼에 관련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제 1 요인을 '전통적인 결혼', 제 2 요인을 '성공적인 결혼', 제 3요인을 '결혼의 불합리성', 제 4요인을 '결혼의 필요성', 제 5요인을 '동거', 그리고 제 6요인을 '이혼 및 재혼'으로 명명하였다.

한국형 결혼관 척도의 요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4와 같다. 전통적인 결혼은 결혼의 불합리성과 .22, 결혼의 필요성과

www.kci.go.kr

표 33. 한국형 결혼관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h^2
38.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돌봐야 집안이 편안하다	.68						.55
37. 가족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남편이 해야 한다.	.62						.41
45. 집안의 대는 반드시 아들이 이어야 한다.	.61						.42
42.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59						.38
41. 관습상 여자가 먼저 청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53						.53
23.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성공에 대리만족해야 한다.	.51						.37
43. 아내는 남편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50						.45
48. 직업을 가진 여자는 살림만 하는 여자보다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된 관계를 갖기 어렵다.	.47						.28
3. 결혼 적령기에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44						.34
40. 결혼 전에 궁합은 꼭 보는 것이 좋다.	.43						.34
39. 연애결혼보다 중매결혼이 바람직하다.	.43						.33
32. 결혼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	.40						.38
17. 결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신뢰다.		.51					.37
20. 결혼생활이 행복하려면 서로에게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50					.31
25. 배우자 선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내가 얼마나 성격이 잘 맞느냐이다.		.49					.29
26. 배우자 선택시 생활습관이나 가치관이 자신과 유사할수록 좋다.		.48					.28
30.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부부가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		.47					.26
22. 부모의 결혼은 자녀에게 중요한 모델이 된다.		.46					.26
19. 행복하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42					.25
15. 결혼은 개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38					.29
21. 누구나 결혼에 대한 자신만의 이미지(환상)을 갖고 있다.		.37					.20
18.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33					.18
47. 아이들을 가지면 자신의 자유시간은 거의 없어진다.			.50				.27
44. 결혼한 부부라고 해서 아이를 꼭 낳을 필요는 없다.			.45				.28

www.kci.go.kr

표 33. 한국형 결혼관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계속)

문 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h^2
46. 아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다.			.45				.27
24. 결혼 후 아내의 호적이 남편에게로 옮겨지는 것은 부당하다.			.44				.22
2. 결혼은 불합리한 제도이다.			.43				.28
28. 배우자의 지나친 음주로 결혼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혼하는 편이 낫다.			.41				.29
31. 결혼 후 부부간의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이혼하는 것이 좋다.			.39				.28
29.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37				.24
7. 능력이 된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37				.32
27. 결혼 전 실수를 책임지려고 선택한 결혼은 불행하다.			.34				.22
13. 결혼은 개인의 행복과 욕구충족을 위한 것이다.				.63			.45
10. 결혼은 사랑의 결정체이다.				.52			.41
14. 사람들은 평범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51			.33
12. 결혼은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다.				.49			.40
9. 결혼은 가족형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46			.36
11. 결혼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43			.27
16. 사람들은 개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혼한다.				.42			.34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42			.45
4. 결혼해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0			.39
8. 결혼이란 남녀간의 파트너쉽이라고 생각한다.				.39			.26
5. 동거는 서로에 대한 간섭과 강요가 적기 때문에 결혼보다 좋다.					-.52		.38
6. 동거는 만남과 헤어짐이 자유롭기 때문에 편리하다.					-.44		.29
34.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이 재혼하는 것은 당연하다.						.49	.33
33. 재혼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48	.30
36. 재혼은 이전 결혼의 실패를 치유해 줄 수 있다.						.47	.33
35. 재혼은 노후를 외롭지 않게 해준다.						.47	.33
고유근(Eigen Value)	10.50	8.63	6.60	5.38	3.52	3.11	
요인 설명량	86.5	71.1	54.6	44.5	32.1	31.9	

www.kci.go.kr

표 34. 한국형 결혼관 척도 요인간 상관관계

	전통적인 결혼	성공적인 결혼	결혼의 불합리성	결혼의 필요성	동거	이혼 및 재혼
전통적인 결혼	1.00					
성공적인 결혼	.01	1.00				
결혼의 불합리성	.22**	.18**	1.00			
결혼의 필요성	.33**	.48**	-.01	1.00		
동거	-.24**	.06*	-.34**	.01	1.00	
이혼 및 재혼	.26**	.21**	.23**	.32**	-.11**	1.00

.33, 이혼 및 재혼과 .26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동거와는 -.24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성공적인 결혼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전통적인 결혼을 고수하는 기혼부부들은 결혼은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잘못된 결혼으로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재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성공적인 결혼은 결혼의 불합리성과 .18, 결혼의 필요성과 .48, 동거와 .06, 이혼 및 재혼과 .21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동거는 이혼 및 재혼과 -.11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이 동거를 선호하고 있는데, 동거를 선호하는 기혼부부의 경우에는 이혼이나 재혼과 같이 반드시 결혼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관련타당도

준거관련타당도는 검사점수와 외적 준거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검사가 준거행동을 어느 정도 잘 설명하고 예언하는지를 수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예언타당도와 공인타당도가 있다(홍두승, 2000).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결혼관 척도와 준거관련 준거척도의 수치들을 본 자료수집시 함께 측정하였기 때문에, 공인타당도를 통해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준비도(김혜선, 신수아, 2002), Spanier(1976)의 결혼불만족도, Spanier(1976)의 결혼만족도, Roach, Frazier 및 Bowden(1975, 1981)의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Scale: MSS), 김영옥(1999)의 결혼관 문항의 각 하위요인과 공인타당도를 계산하였다. 공인타당도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형 결혼관 하위척도와 기존 척도간에는 대부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준거관련타당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전통적인 결혼은 결혼준비도의 자녀양육, 금전관리 및 역할분담, 성숙, 부모로부터 독립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결혼관과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성공적인 결혼은 결혼준비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결혼의 불합리성은 자녀양육, 금전관리 및 역할분담, 성숙, 부모로부터 독립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상대방의 이해, 애정 및 성, 결혼관, 의사소통 능력 및 갈등해결

www.kci.go.kr

표 35. 한국형 결혼관 하위척도와 기존척도와의 상관관계

	한국형 결혼관 척도					
	전통적인 결혼	성공적인 결혼	결혼의 불합리성	결혼의 필요성	동거	이혼 및 재혼
결혼 준비도(김혜선, 신수아, 2002)						
자녀양육·금전관리 및 역할분담	.12**	.07*	.15**	.15**	-.07*	.14**
성숙	.35**	.08**	.34**	.01	-.21**	.07*
상대방의 이해·애정 및 성	-.05	.28**	-.10**	.29**	.10**	.15**
결혼관	-.26**	.27**	-.24**	.14**	.23**	-.05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	.01	.22**	.01	.20**	.05	.17**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	-.23**	.28**	-.12**	.19**	.16**	.10**
부모로부터의 독립	.36**	.12**	.25**	-.01	-.17**	.09**
Spanier의 결혼불만족도(1976)	.07*	-.10**	.05	-.14**	.05	.07*
Spanier의 결혼만족도(1976)	-.05	.05	-.09**	.08**	.03	-.04
결혼만족도(MSS, 1981)						
결혼에 대한 만족	-.10**	.24**	-.14**	.28**	.14**	.10**
사회심리적 동질감	-.22**	.39**	-.12**	.24**	.20**	.11**
결혼에 대한 불만족	.19**	-.12**	.36**	-.16**	-.22**	.04
합리적인 부부관계	-.33**	.16**	-.30**	.10**	.21**	-.09**
결혼관(김영옥, 1999)						
결혼에 대한 견해	.27**	.26**	-.03	.53**	-.01	.23**
혼전순결	.30**	.17**	.05	.30**	-.05	.17**
가정역할구분	.45**	.12**	.08**	.26**	-.07*	.14**
결혼의 조건	.30**	.15**	.23**	.22**	-.10**	.17**

능력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결혼의 필요성은 성숙과 부모로부터 독립을 제외한 결혼준비도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동거는 자녀양육, 금전관리 및 역할분담, 성숙,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상대방의 이해, 애정 및 성, 결혼관,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혼 및 재혼은 결혼관을 제외한 결혼준비도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Spanier의 결혼불만족 척도와는 전통적인 결혼과 이혼 및 재혼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성공적인 결혼과 결혼의 필요성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Spanier의 결혼만족도 척도에서는 결혼의 필요성과 유의미한

www.kci.go.kr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결혼의 불합리성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결혼만족도(MSS)의 결혼에 대한 만족과 사회심리적 동질감은 성공적인 결혼, 결혼의 필요성, 동거, 이혼 및 재혼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전통적인 결혼과 결혼의 불합리성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결혼에 대한 불만족은 전통적인 결혼과 결혼의 불합리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성공적인 결혼, 결혼의 필요성, 동거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합리적인 부부관계는 성공적인 결혼, 결혼의 필요성, 동거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전통적인 결혼과 결혼의 불합리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김영옥의 결혼관 하위요인인 결혼에 대한 견해, 혼전순결, 가정역할구분, 결혼의 조건은 전통적인 결혼, 성공적인 결혼, 결혼의 필요성, 이혼 및 재혼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가정역할구분과 결혼의 조건만이 결혼의 불합리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동거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신뢰도 분석

한국형 결혼관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내적 일치도 지수로 산출하였다. 표 36과 같이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α=.63에서 .88로 동거와 이혼 및 재혼에서 다소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부분 하위영역이 신뢰성이 있는 척도임을 알 수 있다.

한국형 결혼관 척도의 활용

본 연구의 한국형 결혼관 척도는 기존의 결혼에 관한 실태조사를 구성개념으로 척도화한 것으로서 각 하위요인들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 가치관과 최근 변모하는 가족구조 및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본 척도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젊은이들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는 결혼관 탐색을 통하여 실제 결혼상태에 있는 기혼부부에게 적용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 혼재되어 있는 결혼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하위영역은 연구에 따라 연구자의 필요에 맞게 개별적으로 활용가능하다. 또한 요인 5와 요인 6은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대안적 가족구조'로써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 활용해 볼 수도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수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척도와의 관련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전·후의 심리적 문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한국형 결혼관 척도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척도와의 연계성을 탐색한 연구는 전무하지만,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관이 결혼의 준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제 결혼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표 36. 한국형 결혼관 척도의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

한국형 결혼관 척도 하위요인	문항수	신뢰도 계수
전통적인 결혼	12	.88
성공적인 결혼	10	.75
결혼의 불합리성	10	.82
결혼의 필요성	10	.74
동거	2	.63
이혼 및 재혼	4	.64
전체	48	.91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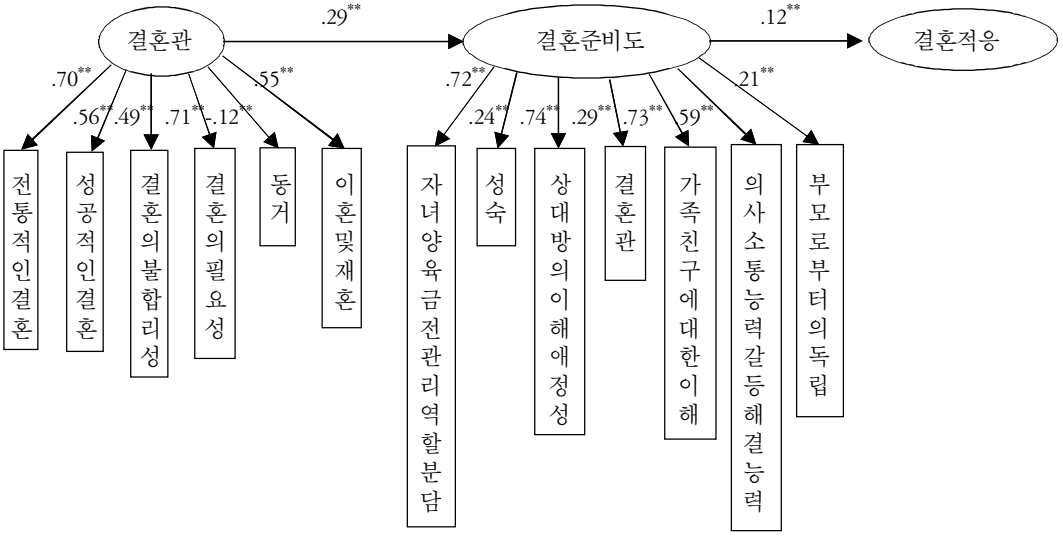

그림 1. 한국형 결혼관 척도, 결혼준비도 및 결혼적응간의 관계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AMOS를 통한 경로분석 결과, GFI=.94, NFI=.95, RESEA=.003, CFI=.94, AGFI=.09, RMR=.005로 가설적 구조방정식모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그림 1의 결과는 본 척도의 이론적 타당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었다.

논 의

결혼은 성인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인간의 생활양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동으로 성적 욕구의 충족과 더불어 자손의 번식을 도모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시키는 고전적인 형태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결혼의 안정성은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서구사회에서는 가족의 해체라는 위기 앞에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혼율과 더불어 젊은 세대는 공식적인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호하고 있으며 독신률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결혼관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결혼관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척도화 작업을 위해서 275명의 대학생들이 결혼과 관련된 반구조화된 문항에 답한 예비연구와 예비연구에서 추출된 121개 문항을 문항양호도 검사를 통하여 문항간 신뢰도를 낮추거나 중복된 의미를 제외한 최종 48개 문항에 대해 1,283명의 기혼부부들이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타당도와 신뢰도 작업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타당도 검사는 안면타당도,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및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자를 포함한 5인의 전문가가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고, 기혼부부 30쌍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문항의 적절성 및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였다. 한국형 결혼관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은 요인분석을 통해 실시되었다. 요인

www.kci.go.kr

분석 결과, 고유가 1.0이상이고, 전체변량의 31.9%를 설명하는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제 1 요인은 '전통적인 결혼'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유교적 사상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제 2 요인은 '성공적인 결혼'으로 결혼생활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제 3 요인은 '결혼의 불합리성'으로 결혼제도의 불합리성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제 4 요인은 '결혼의 필요성'으로 결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제 5 요인과 제 6 요인은 '동거'와 '이혼 및 재혼'으로 최근 변화하는 가족구조 및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내주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성공적인 결혼과 결혼의 필요성은 결혼불만족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전통적인 결혼과 이혼 및 재혼은 결혼불만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전통적인 결혼, 성공적인 결혼, 결혼의 필요성, 이혼 및 재혼은 김영옥의 결혼관 하위척도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결혼의 불합리성은 가정역할구분과 결혼의 조건과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동거는 가정역할구분과 결혼의 조건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한국형 결혼관 척도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계수를 통하여 내적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α=.91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나, 각 하위요인별로는 α=.63에서 .88로 다소 떨어졌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다소 낮게 신뢰도를 보인 하위척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형 결혼관 척도의 활용가능성의 일환으로써 결혼준비도, 결혼관, 결혼적응간의 관계를 탐색해본 결과, 구조적 연구가설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형 결혼관 척도는 타당하고 신뢰도운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형 결혼관을 척도화하는 작업에서 첫째,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기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전체 지역이나 혹은 타 지역에서도 신뢰로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변화하는 우리 시대의 결혼관 혼란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학생들에게 추출한 문항들을 실제로 결혼한 부부들에게 적용해 보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의 결혼관을 탐색한 후 종단적으로 결혼 전·후의 결혼준비나 결혼적응 및 결혼만족도를 탐색해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규모의 층화표본추출을 통한 표집을 대상으로 기혼자의 연령별 결혼관 차이 비교와 현재 별거나 이혼 및 재혼상태에 있는 기혼자들의 결혼관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결혼관을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척도화한 최초의 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결혼과 관련된 외국의 척도들, 예컨대 결혼만족도, 결혼적응, 결혼안정성 등과 같은 척도들을 한국형으로 표준화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보다는 결혼이라는 구성개념이 먼저 척도화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런 시도의 일환에서 본 연구가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권오주 (1989).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김명자 (1992). 성의식의 남녀차이에 관한 연구: 구미공단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효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봉소 (1969). 미혼 남자의 이상적 배우자에 관한 연구: Semantic Differential Scale에 의한. 경북대학교논문집, 15.

김혜선, 박혜인, 옥선화 (1996). 가족관계학. 서울: 한국방송대학출판부.

김영옥 (1999). 우리나라 여대생의 배우자선택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1), 29-44.

김철자 (1977). 인천 교대생의 결혼관 조사연구. 인천교육대학교 학생지도연구, 5.

김혜선, 김영희 (1983). 배우자 선택과 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07-125.

김혜선, 신수아 (2002). 결혼준비도 척도 개발 연구: 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3), 41-53.

김혜향 (1969). 졸업반 여대생들의 결혼관의 조사연구. 사회학지, 2.

남순현 (2004). 가족 내 세대갈등과 통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15

남순현, 한성열 (2002). 가족분화수준, 가족관계의 질 및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33-49.

박경숙 (1993). 한국여성의 교육수준별 결혼유형의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박인덕 (1973). 한국인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12.

백남희 (1986). 결혼적령기 남녀의 배우자 선정조건: 서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정아 (1994). 충남대학교 재학생들의 결혼관과 연애관에 대한 조사.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9.

송대현 (1969). 결혼생활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태도: 남녀의 역학기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3.

신혜성 (1987). 한국인의 결혼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1935-1985년 인구센서스 자료의 15-34세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해옥 (1987). 미혼 남자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하여: 광주직할시 의학계 미혼남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명숙 (1996). 예비부부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2.

연합뉴스 (2005. 11. 8). 서울시 여성 40%, "결혼 안 해도 무방."

옥양련 (1977). 한국 미혼여성의 결혼관: 부산시내 은행여성을 대상으로. 부산대학교논문집, 16.

유영주 (1976). 한국가족에 있어서의 결혼연구: 현대인의 결혼관 조사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논문집, 2.

이경숙 (1980). 미혼 근로자와 대학생의 결혼관에

www.kci.go.kr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해 (1979). 한국여성의 결혼과 변화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연세사회학, 3.
이온죽 (1982). 농촌부락의 결혼 실태와 태도에 관한 연구: 3개 부락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임 (1978). 일부 미혼여성들의 성, 결혼 및 가족계획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논총, 25.
이해춘 (1987). 결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연구. 원광대학교 교육연구, 6.
임진 (1992). 일부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윤경 (1997). 우리나라 성인의 결혼관 연구: 성별, 결혼여부별, 지역별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연구논집, 32.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205-224.
조영숙 (1980). 전문대학 여대생의 결혼과에 대한 조사연구. 순천농업전문대학교논문집, 17.
최재석 (1979). 제주도의 결혼. 가족학논집, 1.
최호원 (1983). 혼인의식에 나타난 배우자 선정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남제 (1974). 한국 도시주민의 결혼관. 여성문제연구, 3.
한덕웅 (2003).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679-705.
홍두승 (2000). 사회조사분석. 서울: 다산출판사.
홍준숙 (1987).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2006). 전국 결혼, 출산 동향조사.
Drew, E. (1998). *Re-conceptualizing family, women, work and family in Europe.* N.Y.: Routeledge.
Larson, J., & Holman, T. B. (1994). Premarital predictors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Family Relations,* 43, 228-237.
Lee, G. R. (1977). Age at marriage and marriage satisfaction: A Multivariate analysis with implications for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3-504.
Lewis, R., & Spanier, G.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Burr., F. Nye, & I.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The Free Press.
Locke, H. (1951). *Predicting adjustment in marriage: A comparison of a divorced and a happily married group*. New York: Holt.
Marini, M. M. (1976). Dimensions of marriage happiness: A research not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3-448.
Powers, W. G., & Hutchinson, K. (1979). The measurement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in the marriage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Roach, A. L., Frazier, & Bowden, S.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Sabateilli, R. M. (1984). The marital comparison level index: A measure for assessing outcomes relative to expect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89-95.
Schumm, W. R., Jurich, A. P., & Bollman, S. R. (1986).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 53, 567-572.

www.kci.go.kr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Terman, L. (1938). *Psychological factors in marital happiness*. New York: McGraw-Hall Book Company.

Westermarck, E. A., 최달곤, 정동호 역(1981). 인류혼인사. 박영사.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04. 10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07. 10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07, Vol. 13, No. 4, 1~27

Development of Scale for Korean Marriage Values

Nam, Soonhyeon

Honam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Most of the researches on the view of marriage from 1970s until now have merely been the status survey to get a glimpse of thoughts on the marriage of the time. It is true that the recognitions of marriage in the recent days, especially those of the youth are going through a great deal of changes. However, it is also recognized that although westernized views on marriage recently are flooding in, still the traditional perspectives are firmly rooted underneath.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predict the potential conflicts from diversified marital perspectives of the youth in the contemporary society applying the Korean views on marriage as an effort to develop views on marriage in scientific way, analyze the psychological problems before and after marriage, and pursue successful marriage to form a stable and desirable family. As for the method, questions were selected by 275 university students an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arriage views by 1,283 married couples were examined.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The scale for Korean marriage values were summarized to six factors - 'traditional marriage', 'successful marriage', 'irrationality of marriage', 'necessity of marriage', 'cohabitation', and 'divorce and remarriage', showing high correlation with the existing scales, and the reliability coefficient of each subscale indicated as comparatively reliable with the value of Cronbach α=.88 at Cronbach α =.63.

Key words : the view of marriage, scale for korean marriage values, successful marriage, traditional marriage, change in marriage attitude, cohabitation, divorce and remarriage

www.kci.go.kr